

《의암집》에 수록된 류린석의 시작품들의 진보적경향

교수 박사 리동윤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 19세기에 창작되었으나 인멸되어 전해지지 않고있는 많은 작품을 적극 찾아내야 한다. 우리 나라에 이름있는 작가나 작곡가, 화가도 있고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명작도 있다는것을 세상사람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민족적 금지와 자부심을 안겨줄수 있고 민족문화예술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계승발전시킬수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73페이지)

우리 나라에는 19세기~20세기초에 창작되었으나 일제의 악랄한 민족문화말살책동에 의하여 인멸되었거나 세월의 흐름속에 묻히어 전해지지 못하고있는 작품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작품들을 적극 찾아내어 널리 소개하는것은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안겨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의암집》(毅庵集)은 류린석의 작품들을 수록한 작품집으로서 여기에는 그가 창작한 수백편의 작품들이 실려있다.

류린석(柳麟錫, 1842—1915)은 19세기말~20세기초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반일의병투쟁을 벌린 의병장의 한사람이었으며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문학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한 문인이였다.

자료에 의하면 류린석이 창작한 시작품들만 하여도 무려 수백여편이나 된다.

그러나 현재 류린석이 창작한 시작품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그 일부만이 단편적으로 소개되고있을뿐이다.

《조선문학사》7(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주체89(2000).)에서는 류린석의 시 《5적7적에게》를 비롯하여 8편을 소개하였으며 《한시집》2(문예출판사, 1985.)에서는 시 《양놈의 대포》를 비롯하여 12편을 전하고있다.

본문은 《의암집》에 수록된 류린석이 창작한 수백여편의 한자시들을 번역한데 기초하여 작품들에 반영된 진보적경향을 분석함으로써 19세기~20세기초에 창작된 작품들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소개하는 사업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2. 본론

류린석은 1842년 3월 8일 강원도 춘천부 가정리(당시)의 봉건유생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여성(汝聖)이고 호는 의암(毅庵)이다.

그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20여

년간을 우리 나라와 중국의 동북지방, 로씨야의 연해주에서 반일투쟁을 벌리었다.

이 나날 그는 일제의 탄압과 폭행이 악랄하게 감행되었으나 열렬한 애국지조를 굽히지 않았으며 독립의 념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활동하다가 1915년 3월 14일 중국동북지방에서 생을 마치었다.

그는 일생동안 수백여편의 한자시들과 행장, 격문을 비롯한 수많은 글들을 집필하였으며 그가 쓴 글들은 《의암집》((54권 29책)에 실려있다.

그가운데서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305편의 한자시들을 번역한데 기초하여 해당 시들의 진보적인 경향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류린석이 창작한 시작품들의 진보적인 경향은 무엇보다먼저 반일애국적인 경향이 강한것이다.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있던 일본놈들은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조선에 대한 침략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였고 지어는 왕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까지 살해하는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뿐만아니라 1905년에는 매국역적들과 공모결탁하여 조선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불법무효의 침략조약인 《을사5조약》까지 허위날조하였다.

하여 전체 조선인민은 일제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역적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금치 못해하였다.

류린석은 당대 인민들의 이러한 감정을 자기의 시작품들에 반영하였다.

류린석의 시작품들의 반일애국적인 경향은 우선 우리 나라에 침입한 일본침략자들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역적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의 감정을 강렬하게 토로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시작품들로는 《명치와 이등박문을 저주하노라》, 《명치의 죽음을 두고》, 《명치가 죽으며 꿇었다는 말을 듣고》, 《5적7적에게》, 《망한 나라의 사대부들을 저주하노라》, 《세상을 걱정하여》, 《오랑캐들은 짐승이라》, 《원통하여 울고우노라》 등 여러 작품들을 들 수 있다.

명치와 이등박문 죽을 죄는 하늘이 알고	睦藤弑逆罪天通
포악하고 흉물스런 짐승도 이 같지 않네	惡獸凶禽無是同
인간문명 펼쳐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今日文明時代世
정말로 극악한 무리라 불려야 마땅하리	謂之極等上英雄

(《명치와 이등박문을 저주하노라》)

세상에 그 누가 죽지 않으랴만	天下誰無死
네놈의 죽음이 제일 가련하구나	莫如爾可哀
죽어서 어느곳으로 갈데 있느냐	去歸何處所
네 애비 앉아있는 저승에 가야지	爾父在泉臺

(《명치의 죽음을 두고》)

이 시들에서는 침략의 피수이며 왜놈의 우두머리인 명치와 우리 나라를 빼앗는데 앞장에 섰던 이또 히로부미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짐승과도 같은 놈들이라고 타매하는 한편 저승으로 간 명치를 야유조소하고있다.

사랑하는 내 나라의 원썩는 저 왜놈들	日愛我韓讎彼倭
대가리와 아가리 온 몸뚱이가 역겹네	倭頭倭口倭全身
더러운 몸과 대가리 주둥이로 통치하며	身頭口倭兼政事
간신만 취하고 충신 버리니 어찌되랴	取輕舍重又何歟

(《세상을 걱정하여》)

시 《세상을 걱정하여》에서는 사랑하는 내 나라를 빼앗은 왜놈들은 우리 인민이 가장 증오하는 원썩이라고 하면서 왜놈의 대가리와 아가리, 몸뚱이전체가 더럽고 증오스럽다고 치솟는 분노의 감정을 터놓고있다.

너희들 하는짓 보기에도 역겨운데	汝看汝爲心快否
나라를 망치고 백성을 죽이는 말 쉽게도 하누나	國亡人滅設言輕
네놈들 몸뚱이 무슨 이익 있겠느냐	在汝身家何所利
5적7적이란 오명만 남았구나	只存五七賊爲名

(《5적7적에게》)

시 《5적7적에게》에서는 나라를 팔아먹고 백성을 죽이는 매국역적들을 단죄하면서 그 놈들에게는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놈들이라는 더러운 오명만이 남았다고 신랄히 규탄하고 있다.

이처럼 류린석은 자기의 시작품들에서 날카로운 시어들을 골라쓰으로써 원썩 왜놈들과 매국역적들에 대한 당대 우리 인민들의 하늘에 사무친 증오의 감정을 반영하였다.

류린석의 시작품들의 반일애국적인 경향은 또한 원썩 왜적을 반대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렬사들의 애국심과 절개를 높이 찬양하고 침략자들을 모조리 쳐부시고 조국강토를 수호할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류린석은 1894년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오랑캐들의 무력침공이 시작되자 격문을 발표하여 사람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려일으키고 1895년말부터 제천반일의병대의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1904년초 일제가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침략책동을 더욱 강화하자 그는 평안남북도의 30여개 군에 유교단체의 이름을 단 《충유계》를 내오고 그것을 통하여 의병투쟁을 준비하였다.

그가 반일의병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의병투쟁에 떨쳐나섰다. 그는 태천을 중심으로 평안남북도일대에서 반일의병투쟁을 벌려 일본침략자들과 친일주구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1910년 5월부터는 13도의군도총재로 활동하였다.

이 나날 그는 의병투쟁을 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애국심과 절개를 높이 찬양하고 인

민들에게 왜적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적극 호소하는 시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이러한 시작품들로서는 《의로운 렬사들을 추모하여》, 《나라안의 백성들에게 아뢰노라》, 《젊은 벗들에게 권고하노라》, 《눈물을 씻는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등 여러 작품들을 들 수 있다.

인륜도덕 말한것이 몇천년이런가	幾千世積尊攘論
오백년세월 그 은혜 깊이 입었네	五百年深培養恩
하늘땅 바뀌어도 나라명맥 유지하더니	沸乾道國扶持血
몸은 죽고 나라 무너지니 원통하구나	斷沒身家破碎冤

푸른 산 통곡하며 렬사들의 뼈 묻고	痛泣靑山埋義骨
쫓는 해도 충신들 그 넋을 빛내주네	高瞻白日揚忠魂
후대들 이역에서 헛되이 죽어가며	後死賤身空異域
뜻을 이루지 못하니 말하기 괴롭구나	遷延志事愧難言

빛도 없고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으니	無華無國又無民
예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날이 없었네	從萬古無今此辰
그 누가 가난해도 죽기를 좋아하랴만	誰則惡生而好死
의리지켜 제 한몸 생각하지 않았네	只爲見義不知身

산세가 험해도 밝은 해빛 비치듯이	山嶺日明還有遜
진리는 사람들 기억속에 남아있으리	天經人紀賴比淪
시기질 없애려고 선비들 글을 써서	却怪名儒行墨者
소문난 옳고그름 똑똑히 갈라놓았네	是非談說弄柔唇

(《의로운 렬사들을 추모하여》)

시 《의로운 렬사들을 추모하여》에서는 한몸 다 바쳐 나라를 지켜싸운 의로운 렬사들을 조국의 산과 들, 쫓는 해도 잊지 못해 그 넋을 빛내주고있다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하늘을 그리안고 통곡하는 늙은 이 몸	天涯抱痛老生身
하염없이 동포향해 눈물만 흘리노라	爲向同胞下淚頻
수천여년 렬사가진 동방의 나라이고	四千來歲東華國
5백여년 지내온 성인들의 백성이라	五百餘年聖世民

짐승같은 놈들이 이 땅을 씹어삼켰으니	食人以獸嗟當地
노예되어 원쑤들과 한하늘을 이였구나	爲役於讎忍戴旻
오늘형세 사는것이 죽는것만 못하거니	有死無生今日事
충의에 더욱 힘써 애국정신 떨쳐가자	勉加忠義振精神

(《나라안의 백성들에게 아뢰노라》)

시 《나라안의 백성들에게 아뢰노라》에서는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하루아침에 짐승같은 왜놈들에게 짓밟히어 노예의 처지에 놓인 현실을 통탄하면서 전체 인민이 애국충정을 높이 발휘하여 원쑤격멸에로 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변함없는 마음 품고 이 몸은 늙었는데	磨礪丹衷老暮年
거치른 이역땅에서 고생속에 백발됐네	風霜白髮遠荒邊
조국땅 바라보며 언제나 함께 있으니	想望華東同運返
나라와 백성위한 마음 언제나 간직했네	營爲民國一心懸

밤낮으로 근심속에 살아야 할 처지이고	憂存夙夜餘生地
만번 죽어 끝까지 바로잡을 세상이거니	事定初終萬死天
그대들에게 힘쓸것을 간절히 권고하노라	慫慂更向諸君勉
부닥치는 고난을 활달하게 이겨내라고	勤苦前頭有豁然

(《젊은 벗들에게 권고하노라》)

시 《젊은 벗들에게 권고하노라》에서는 거치른 이역땅에서 언제나 조국을 잊지 못해하는 자기의 심정을 터놓으면서 온 나라의 젊은이들이 부닥치는 곤난을 이겨내면서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힘쓸것을 호소하고있다.

이밖에도 시 《눈물을 씻는다》와 《의로운 사람들에게》에서는 전체 조선동포가 한사람 같이 떨쳐일어나 불구대천의 원쑤인 왜놈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류린석이 창작한 시작품들의 진보적인 경향은 다음으로 모순에 찬 당대 사회와 봉건 통치배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고 착취받고 압박받는 인민대중의 비참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류린석은 전국각지에서 의병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당대 사회의 현실과 그로 인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으며 자기의 심정을 담은 많은 시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류린석의 시작품들에서는 우선 나라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향락과 영달만을 추구하는 봉건통치배들을 신랄하게 폭로규탄하고있다.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탄식하노라》, 《강화도양란》, 《나라안의 사군자들에게》, 《스스로 탄식하네》, 《현혹을 깨치라》, 《정월초 이레날에》, 《도적놈이 다 흠뻑네》 등 여러 작품들을 들 수 있다.

임금을 팔아먹고 제 리익만 꺾하누나	優寵販君圖別利
이름난 선비 아침하며 조정을 휘젓네	名儒媚賊攬崇官
새 날아예듯 조정엔 개무리가 날뛰고	林翔高鳥庭巡犬
사람들 변하니 귀천을 가르기 어렵네	人物從難貴賤觀

(《탄식하노라》)

시 《탄식하노라》에서는 봉건관리들이 제 하나의 리익을 위해 임금을 팔아먹은 당대 사회현실을 보여주면서 조정의 간신들을 개무리에 비유하여 단죄하고있다.

태평스런 세월속에 편안히도 사는데	昇平世久恬嬉存
양놈들이 성을 쳤다 급보가 전해왔네	報急沁城洋裨昏
섬백성들 새떼처럼 모조리 흩어질제	都民鳥散震宸念
장사들 나라위해 구름같이 모여왔네	壯士雲興重國思

장수들 모여앉아 전술들을 세우는데	大老首陳當戰策
조정에선 저저마다 피신처만 찾누나	在廷從息去邪論
의병들 떨쳐나서 여울목을 건느나니	仗義出羣梁帥去
하늘도 그들 도와 공세울건 분명쿠나	分明天佑樹功勳

(《강화도양란》)

시 《강화도양란》에서는 양놈들이 침입하여 온 나라 인민들이 외적을 반대하여 한사람 같이 떨쳐나설 때에도 조정의 관리놈들은 나라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체살길만 찾고있다고 규탄하고있다.

증오스럽구나 그리고 가소롭구나	可憎又可笑
도적놈이 다 훔쳐가 텅 비였구나	盜竊資空虛
약한자는 도리어 부지런히 일해도	弱子還勤力
혈육들은 끝끝내 갈라져서 사누나	親朋遂異居

가까운 산의 나무는 모조리 없어지고	近山廚乏桂
바다엔 먹을 고기 한마리도 없구나	傍海食無魚
살아갈 계책 있으면 마음놓을것같아	活計猶吾足
결에 있는 상자안의 책들을 꺼내드네	携持在篋書

(《도적놈이 다 훔쳤네》)

시 《도적놈이 다 훔쳤네》에서도 나라의 나무와 물고기까지도 다 가져다 제 배를 채우는 봉건통치배들이야말로 하나와 같이 도적놈들이라고 규탄하고있다.

류린석의 시작품들에서는 또한 봉건통치배들의 학정밑에서 착취받고 억압받는 당대 인민들을 깊이 동정하고 그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앞마을의 가난한 집》, 《고사리 꺾는 처녀》, 《김로파를 추모하여》, 《절량》 등 여러 작품들을 들수 있다.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형편과 봉건관리들의 악랄한 착취상에 대하여 시 《앞마을의 가난한 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아침밥 먹지도 못했는데

君不見
前村貧家朝無飯

저녁도 먹을것이 없으니 아이들 밥달라 보채는것을	夕又無飯兒猶索
안타까와 종아리 때리니 아이들은 목놓아울어대네	叫怒撞足仍呼泣
아버지 말없이 속태우고 어머니 꾸짖기만 하누나	乃父無語母強責

고시형식으로 된 시의 앞부분에서는 하루세끼 먹을것이 없어 고통을 겪고있는 가난한 집안의 형편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아침밥도 먹지 못했는데 저녁끼니마저 에울것이 없는 집에서 밥을 달라고 목놓아울어대는 아이들에게 본의아니게 큰소리로 욕을 하는 어머니와 말없이 속을 태우는 아버지의 가궁한 모습은 당시 가난한 집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비참한 현실이었다.

시의 다음부분에서는 백성들의 생활에는 아랑곳없이 각종 명목으로 그들의 피땀을 짜내는 관리놈들을 규탄하고있다.

가마라도 팔아서 돈 구할가 이리저리 생각하고있는데	拔鍋換錢計區區
아전놈 달려와 군포를 내라니 불같은 호령 거역할수 없구나	吏來徵布不敢逆
품팔이로 얻은 쌀 한홉으로 한끼 굶때려고 밥짓자 하는데	傭舂得米將向炊
이웃마을 부자놈 달려들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네	東隣貸主來促迫
한숨만 쉬면서 방에 들어가 머리를 싸쥐고 앉아있는데	歔歔入室相聚首
그칠줄 모르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저 하늘 한가득 채워놓누나	兒啼不住氣空塞

시에서는 백성들을 더욱더 빈곤으로 몰아가는 관리놈들의 악착한 수탈행위와 빚에 쫓기우고 당장 먹을것이 없어 머리를 싸쥐고 한숨을 짓는 집주인과 배고파 울음을 그칠줄 모르는 아이들의 가궁한 모습을 눈물겹게 펼쳐보이고있다.

시의 다음부분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가난해지기만 하고 부자놈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부유해지는 모순에 찬 당대 사회를 저주하는 백성들의 울분에 찬 모습과 그들에게 밥 한술 보태주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기나긴 세월 이렇게 흘렀으니 무정한 세월 어떻게 흘러보내랴	悠久歲月何以過
백가지 궁리하고 천가지 생각해도 좋은 계책 하나도 없구나	千計百計無好策
어이하여 이 세상 부자놈들은 저렇듯 복락만을 누려가는가	世上富人何福力
제맘대로 입고 배부르게 먹으며 수많은 재부를 쌓아두고 사누나	厭衣厭食有餘積

앞마을의 가난한 집들에서는 갈수록 슬픔만 더해가는데	前村貧家甚可哀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먹었으니 어이타 그 위기 이겨낼수 있으리오	盡日不食何獨厄
가난한 사람은 더더욱 가난하니 이 세상 누구를 원망한단 말인가	貧者自貧誰怨尤
저 하늘에 떠오는 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하소연 하누나	仰視皇天日揭白
그 정상 보느라니 가슴이 아파 이 내 얼굴 저절로 이지러지는데	有時訴我顏色傷
내 밥그릇 덜어서 준다 하여도 어이타 주린 배 채워줄수 있으랴	割我簞飯豈饒飢

류린석은 이 시에서 빈부의 차이가 하늘땅과 같이 심해지고있는 당대의 사회현실을 개

탄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이렇듯 암담한 현실을 두고 몸부림치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절절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시의 마감부분에서는 나라에서 백성들을 구제한다고 떠들어대는것은 백성들을 기만하기 위한 한갓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있다.

나라를 다스려 백성구제한다는건 책속에만 써여있는 거짓말이구나 書中經濟謾說與
생각에 잠겨서 문밖을 내다보는데 봄물오른 버들만 흐느적거리누나 坐看門柳動春色

이처럼 류린석은 자기의 작품들에서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받고있는 인민들을 깊이 동정하고 당대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류린석이 창작한 시작품들의 진보적인 경향은 다음으로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긍지높이 노래하고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미풍량속을 높이 찬양한것이다.

류린석은 우선 우리 나라 삼천리금수강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혹된 자기의 심정을 시작품들에 담아 노래하였다.

그 대표적인 시들로서는 《구월산으로 들어가면서》, 《묘향산에 대한 회포》, 《석계구곡가》, 《고성으로 가는 길에서》, 《설악산》, 《바다를 거닐며》, 《청간정》, 《사계절을 노래하노라》, 《강변의 밤경치》, 《산천을 읊노라》, 《령동으로 가던 길에서》 등 여러 작품들을 들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 4대명산가운데서	三韓之國四大山
묘향산은 장쾌하고 수려하여 이름났네	妙香獨負壯秀名
이 몸도 장쾌하고 수려한것 좋아하지만	而我所慕壯秀實
장쾌하고 수려한 형태만 보지 않노라	非徒爲見壯秀形

다듬어서 깎아지른 못봉우리 눈길끌고	君峰摩斗爭聳目
일만 골짜기 감도는 구름 가슴 열리네	萬壑嘯雲忽盪胸
언틀언틀 솟구침은 신선들이 서있는듯	峻嶒竦若神明立
기이하게 채운것은 조물주의 숨씨인가	磅礴訝許造化雄

먼 옛날 하늘에서 성인이 내려와	降生神聖當堯年
천하의 동쪽에 조선을 세워주었네	天下正東開朝鮮
후날에는 뛰어난 스승 교화 펼쳐	後有殷師因教化
우리 나라 문물제도 더욱 빛냈네...	本朝文物更赫然

(《묘향산에 대한 회포》)

왼쪽은 금강산 오른쪽은 푸른 바다	左挾金剛右溟渤
청춘의 혈기안고 이 마음 달려가네	青春獨立意蒼茫
넓고 높은 하늘땅 맑은 정기 넘치고	浩浩乾坤空積氣
높이 솟은 해와 달 밝은 빛 뿌리네	新新日月自生光

번개 우뢰 그치니 못가는 고요한데	龍收雷雨淵心默
흰구름 바다우에 아름답게 비꼰네	鵬搏天雲海道長
돌러봐도 신선은 찾을수 없지만	回首永郎仙已去
어부들 타령소리 물결타고 들려오네	漁翁處處歌滄浪

(《고성으로 가는 길에서》)

모든 산에 눈내리면 눈산으로 되지만	雪後千山皆雪岳
설악산엔 눈내려도 류다른 풍경있네	未應雪岳異乎觀
설악산에 내린 눈이 다 녹아 없어져도	雪岳雪存無雪後
흰 눈내린 모양으로 우뚝 솟아있구나	特立千山雪岳寒

(《설악산》)

작품들에서는 우리 나라의 명산들인 묘향산과 금강산, 설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와 푸른 파도가 설레이는 동해의 절경을 한쪽의 그림파도 같이 한눈에 안겨오게 펼쳐보이면서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격동된 심정으로 노래하고있다.

푸르른 바다는 그지없이 장쾌하고	既爲蓬海壯
거울같은 호수는 더없이 기이하네	胡復鏡湖奇
사람들의 마음을 여기에 퍼놓은듯	平鋪可人意
굴니는 바다는 신기하고 묘하구나	洋溢妙神機

옛날엔 누군가 놀음터라 하였지만	誰昔風流地
내 지금 때없이 통곡만 하고싶네	我今痛哭時
흥분한 이 마음 삭이기 어려운데	謾興時無賴
하늘가엔 흰갈매기 날아예누나	空令白鷗飛

(《경포에서》)

시 《경포에서》에서는 장쾌하고 기이한 바다와 호수의 경치를 생동하게 펼쳐보이면서도 이렇듯 아름다운 조국산천을 왜적에게 빼앗긴 비통한 심정도 함께 담고있다.

류린석은 또한 자기의 시작품들에서 예로부터 애국심이 강하고 불의와 타협을 모르며 부모형제간에 화목한 우리 민족의 고상한 미풍량속에 대해서도 찬양하였다.

이러한 시작품들로서는 《어머니와 딸의 상봉》, 《함께 공부하는 소년에게》, 《김렬수에게 주노라》 등 여러 작품들을 들수 있다.

시 《어머니와 딸의 상봉》에서는 서로 돕고 위해주는 우리 인민들이 지닌 고상한 인정 세계를 생활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멀리로 시집간 내 막내딸이	遠女何能至
삼년만에 불쑥 문앞에 나타나니	三年始當門
만나니 반갑지만 걱정되누나	相見我心慰

시부모님 다른 말하지 않더냐 舅姑無後言
(어머니의 말)(右母言)

시부모님 웃으며 허락했어요 舅姑好顏許
어서가서 부모님 만나보라고 而女敢寧親
내가 올 때 시부모님 말씀했어요 來時舅姑語
겨울 나고 새봄에 돌아오라고 經冬又經春
(딸의 대답)(右女對)

시부모님 내 마음 헤아리시어 舅姑忖我心
집에 계신 어머님 찾아가는데 謂我母在堂
빈손으로 어떻게 만나겠는가 未可空手見
떡과 엿을 가져다 드리했어요 持贈餅與餹
(딸의 말)(右女言)

(《어머니와 딸의 상봉》)

시에서는 멀리 시집보냈던 딸을 3년만에 만난 어머니의 반가움과 친정집으로 나들이를 가는 며느리에게 온갖 성의를 다하여 떡과 엿을 꾸려주며 길차비를 하여준 시부모들의 인정세계를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이러한 시들을 통하여 그는 예로부터 동방례의지국으로 알려진 우리 민족의 고상한 미풍양속을 자랑스럽게 노래하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류린석이 창작한 수백편의 시작품들은 그자신이 직접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반일의병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창작한 작품들이므로 하여 당대 사회현실 특히는 당시 우리 인민들의 반일애국적인 사상감정과 기개를 엿볼수 있게 한다는데서 일정한 문학사적가치를 가진다.

3. 결 론

론문에서는 류린석의 《의암집》을 처음으로 번역한데 기초하여 여기에 수록된 시작품들의 진보적인 경향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류린석이 창작한 시작품들에는 그의 계급적 및 세계관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그의 작품들가운데는 봉건적인 신분제도와 봉건왕권을 옹호하고 찬미하며 봉건적인 《충군》사상과 복고주의를 고취하는 작품들도 적지 않다.

이로부터 류린석의 작품들에서는 당대 사회의 현실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형편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그에 대해 동정은 하였지만 그들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올바른 방도는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밖에도 자연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인 색채의 작품들과 민족글자를 고수하고 살려쓰기 위한 애국문화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던 당시의 흐름에 맞지 않게 이해하기 힘든 한자

시들을 창작한것과 같은 제한성도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응당 주체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대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형태의 고전작품들을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연구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학예술유산으로 길이 전해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류린석, 《의암집》, 한자시작품, 반일의병투쟁, 민족문학예술유산